

치 사

불교가 삼국시대에 이 땅에 전파된 이래 1,70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이요, 전통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국난이 있던 시기에는 산중수행에도 분연히 일어나 호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민초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에 처했던 1906년에는 고승대덕들과 여러 본산에서 교육구국의 뜻을 모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설립하였고, 명진학교는 이후 3대 사학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란한 유산을 가진 우리 불교가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의 한 명으로서 느끼는 참담함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우리 불교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불자 인재 양성에 소홀했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 신심 깊은 불자이자 애교심이 가득한 김희옥 총장이 취임하여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제2건학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동국대의 발전은 곧 불교의 발전이며,
동국대의 미래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동국대를 통해 배출된 훌륭한 불자
인재들은 사회 각계에서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종단과 2천만 불자들이
역할은 자명합니다. 우리 불교가
힘을 모아 설립한 동국대가 타종교가
재단인 여타의 대학보다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동국 발전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가, 여러분의
동참이 동국대의 제2건학운동 성공과
우리 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2천만 불자들, 동국대의 미래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어 항상 밝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5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